

# 안타까운 이승의 삶 달래주는 웅장한 무덤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④

19대 숙종 원비 인경왕후 - 익릉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1661~1680)



익릉의 홍살문과 정자각.

### 익릉(翼陵)은

제19대 왕 숙종의 비 인경왕후 김씨의 능이다. 서오릉 중 하나로, 능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능이다. 숙종 때 조성되었으나 숙종이 아직 능의 석물을 간소화하려는 교령을 내리기 이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국조오례의>의 제도를 따르고 부분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양식을 띠었다.

정자각은 당시 유행하던 익살을 갖추고 전면과 측면이 1칸씩 늘어난 전면 5칸, 측면 5칸의 건물이다. 크기나 모습 이 승릉(僊陵)의 정자각과 거의 같으나 맞배지붕에 방풍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능은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봉분 주위에 난간석만 둘었는데, 난간석에는 방위 표시를 위해 십이지를 문자로 새겨 넣었다.

봉분 앞에 있는 장명등과 망주석의 대석(臺石)에는 꽃무늬를 새겼고, 망주석은 귀의 구멍이 사라지고 세호(細孔)가 위로 오르는 모양을 조각해 놓았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의 양식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3면의 곡장과 봉분을 에워싼 석양 및 석호 각 2쌍, 혼유석 1개, 문무인석 각 1쌍, 석마 2쌍이 있다. 서오릉=사적 제196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면적 1822.19792㎡ (552.13512정).

능의 규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 익릉은 서오릉 중에서 가장 장엄(莊嚴)하다. 능호에 썩 잘 어울린다. 홍살문 밖에서 바라보면 막 이룩하는 점보기 같다.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는 위쪽으로 경사지게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정자각 뒤로 능상이 우뚝 솟아 있다. 대단한 권력자의 무덤 같다.

실은 거기에 잠든 이는,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인경왕후다. 왕후는 딸 둘을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요양에서 사망한 걸로 추측된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는 광성부원군 김만기의 딸이다. 1670년(현종 11) 10세 때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의동 별궁에 들어갔고, 다음해 3월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674년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고, 1676년 정식으로 왕비의 책명을 받았다. 1680년 10월에 천연두 증세가 보였는데, 이때 숙종은 천연두를 겪지 않아 면역이 되어있지 않았다. 천연두는 전염병이다. 약방도 제조 영의정 김수항의 건의에 의하여 왕은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하였다. 왕비는 발병 8일 만에 경덕궁에서 운명하였다.

천연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장 두려워한 전염병 중 하나였다.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데다 다행히 복수를 건진다 해도 곱보 자국이 얼굴에 남는다. 발병 원인을 몰랐던 사람들은 심지어 병이 별종별 또는 지진 때문에 생긴다거나 악령, 신의 노여움 때문에 생긴다고 여기기도 했다. 그래서 천연두의 공식 병명은 '두창(痘瘡)'이지만 민간에서는 '마마' 또는 '손님'으로 불렀다.

상감마마, 중전마마 등 왕과 왕비에게 붙이는 '마마'라는 최상급 존칭을 질병에 붙이면 병을 옮기는 역신이 노여움을 풀고 기분이 좋아져 환자의 몸에서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또 병이 나면 터춧대감의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낫는다고 여겨 '대감놀이'를 했다. '몹시 애를 먹다'라는 뜻의 의미로도 쓰이는 흥어는 '작은 손님', 천연두는 '큰 손님'으로도 불렸다. 조상들이 천연두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천연두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황제들의 저승사자로 군림해 왔다. 이집트와 전쟁을 하던 히타이트 왕과 왕자, 명상투르크 유명한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이슬람 칼리프 아바스 알 사바, 영국 여왕 메리 2세, 러시아 황제 표트르 2세, 프랑스 황제 루이 15세, 6세에 청나라 황제가 되어서 18년간 중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순치 황제 등도 모두 이 병에 걸려 죽었다. 그리고 이들 통치자들을 데려갈 때마다 나라와 제국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에 따른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천연두에 걸렸던 통치자들이 다 죽었던 것은 아니다. 운 좋게 천연두 저승사자로부터 살아남은 사람 중에 유명한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아르헨틴 링컨이다. 천연두는 1979년 소말리아의 마지



익릉의 계단식 참도.

## 노론의 대표적 인물 김만기 딸로 10세때 세자빈 간택 왕비 책봉 4년만에 천연두 발병...20세 나이로 요절



익릉을 관람하는 답사객들.

막 환자를 끌어들 WHO가 공식적으로 박멸한 것으로 선언했으나 연구용 균은 보관하고 있고, 화생방전의 수단으로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 중전마마는 마마에 걸려 급사했지만 급히 거처를 옮긴 왕은 마마를 피했다. 숙종이 감염되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왕비는 나이 20세에 운명하였기에 장희빈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없다. 장희빈은 1686년(숙종 12) 숙원이 되었고, 1688년 소의로 승진되었다. 그때 이미 인경왕후는 이 세상에 없었다. 숙종의 여인 편력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원비 인경왕후 자식 없이 천연두로 20세 사망, 제1계비 인현왕후 폐결핵

으로 35세 사망, 제2계비 인현왕후는 24세 때 천연두를 앓았으나 극적으로 회생했다. 그러나 흉한 병의 흔적은 남았다. 영리하고 애교스럽고 건강한 희빈 장씨, 숙빈 최씨 등 후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당연하다.

중전이든 후궁이든 왕의 여자는 정략적 관계의 산물이다. 애초부터 애뜻한 사랑이 깎여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다. 권력의 정점인 왕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는 최고의 방법이 혼인이다. 세도가들의 기대와 왕가의 뜻이 합치된다.

인경왕후는 노론의 대표적 인물인 김만기의 딸이다. 서인은 노장파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과 소장파 한태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노론, 소론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 예악의 태두 김장생의 문인들이었다. 김장생은 김만기의 고조부다. 인경왕후는 이른바 명문가 출신이다.

숙종조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 사색분당의 격전장이었다. 숙종은 세 차례 걸쳐 한국이란 이름의 정계 개편을 통해 봉당 내의 대립을 촉발시키고 왕에 대한 충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유능한 신하의 회생도 컸다. 윤후, 이원정, 송시열, 김수항, 박태보 등이 회생되었다. 인현왕후 폐위, 장희빈 사사 등도 정국 전환의 희생물이다.

김만기는 1671년 딸을 세자빈으로 들여보내고, 1673년 영릉(寧陵, 17대 효종릉)을 옮길 때에 산릉도감의 당상관이 되었다. 1674년 7월 병조판서로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해 소를 올려 3년상을 주장했다.

그 해 숙종이 즉위하자 왕의 장인으로서 영돈녕부사에 승진되고 광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총융사를 겸관해 병권을 장악했고 김수항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때 훈원대장으로 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남인과 맞섰다. 그리고 강만철 등이 허적의 서자 권견과 종실인 북청군·북선군·북평군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하자 이를 다스려 보사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노론의 과격파로서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사직되었다가 뒤에 복직되었다.

서오릉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꽃비가 흩날린다. 소용돌이 정국의 중심에 있었으나 20세에 죽는 바람에 험한 꼴은 목격하지 않았다. 꽃다운 나이에 낙화가 되어 싸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중전이 된 인현왕후, 장희빈 등을 생각하면 요절도 때로는 복이 된다.

부부 금슬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정략혼인이었지만 딸 둘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 정분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더욱이 능을 이렇게 거창하게, 위엄마저 풍기게 조성한 것은 왕비에 대한 숙종의 속내를 짐작케 한다. 지금도 숙종의 흥행이 밤에 물레 빠져나와 속삭이고 가는지, 약간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장희빈묘에도 들을까. 서오릉에는 숙종의 여자 4명이 잠들어 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석가모니부처님 사리

계세 리마 큰축 사리

아난존자 사리

목련존자 사리

밀라레빠 사리

석가모니부처님 열사리

초대 까르마빠 사리

왕친스님 사리

리마 풍카빠 사리

성철 큰스님 사리

삼세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_서울 불자를 위한

## 부처님 진신사리

### 서울(상원사) 친견 특별 대법회

2008년 5월 23일 ~ 5월 25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장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31-1 상원사

주최 | 마이트레아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주관 | 한국불교 태고종 대림2동 상원사

문의 | 상원사 종무소 TEL. 02)833-0374~5

후원 | 한국불교 태고종,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신문사

상원사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6번 출구 도보 10분거리

안내 |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400여과, 10대 제자를 비롯한 500아라한의 사리 2,000여과, 한국의 성철 큰스님을 포함한 세계 고승들의 사리 등 총 39위(位)의 사리 3,000여과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